

한 시인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산문

유니크한 문체에 반해 쥐스킨트의 포로가 되다

김선평 | 시인

내 서가에는 온갖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뭘 잘 분류하고 정돈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 탓이다. 글쟁이의 기질로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나쁜 습관이며 고쳐야 할 병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작가들의 책은 잘 정리된 채 책상 근처에 꽂혀 있다.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skind, 1949~)의 책들도 이문구와 밀란 쿤데라 등의 책들 곁에 가지런히 꽂혀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작품집은 《콘트라베이스》《향수》《좁머씨 이야기》《깊이에의 강요》《비둘기》《로시니 혹은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문제》(이상 열린 책들) 등이다. 서가에는 이 책들이 다 꽂혀 있다. 장정을 달리 해 출판된 두세 권이 나란히 꽂혀 있기도 하다.

그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담백하면서도 유니크한 문체다. 나는 그 문체의 힘에 이끌려 그의 작품을 대부분 읽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진지한 물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비극적 서사가 그렇게 빠르고 흥미롭게 읽힌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책을 열면 어느덧 결말에 도달해 있는 빠른 진도에 놀라곤 했다. 간결한 서사 구조와 테마를 향해 경쾌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스피디한 문체는 산문을 읽는 즐거움을 증폭시켜 준다.

산문은 운문과 달리 한번 읽으면 그만인 경우가 많은데, 그의 산문, 특히 《콘트라베이스》는 서너 번을 넘게 읽었으며, 더러 갖고 다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쥐버리기도 했다. 쥐스킨트에 대한 나의 편애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하면 나는 지금 쥐스킨트와, 아니 《콘트라베이스》와 연애를 하고 있다. 한 예술가의 독백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의 서사 구조는 아주 멋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고뇌와 탄식이 점차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의 고독하고 황량한 내면 속으로 독자를 몰입시킨다. 중얼거리는 듯한 독백이, 시시한 일상의 동어반복이 심금을 울리며 그 파문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 이상한 힘에 이끌려 그의 문체를 약간 흉내내 한편의 시를 쓰기에 이르렀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파트리크 쥐스킨트, 아시지요, 《좁머씨 이야기》를 쓴, 표정이 좀 멍청한 작가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의 또 다른 산문 《콘트라베이스》를 읽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모노 드라마를 위한 쓸쓸한 대본인데요, 콘트라베이스, 가장 덩치가 큰 현악기, 가장 미세한 소리를 내는 그 악기를 문득 보고 싶습니다. 특, 건드려 보고 싶고, 현에 활을 한 번 대보고 싶고, 속이 텅 빈 그 놈의 몸을 한 번 안아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콘트라베이스》의 앞 부분을 읽어 나가다가 브리암스의 〈교향곡 2번〉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테이프로 사서 차 안에서, 내 차는 94년식 엘란트랍니다만, 차 안에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요즘 모리스 라벨과 바그너, 그리고 베토벤 순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만, 로큰롤이 몸을 도약시킨다는 것, 아시지요? 라벨은, 특히 〈볼레로〉가 그러한데요, 내 마음을 강물로 흘러

가게 합니다. 점점 높게, 그러니까 크리센도로 마음의 한 끝을 주옥 끌 어울리는데, 그때 그 부력(浮力)으로 몸이 붕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브람스의 <교향곡 2번>, 그 베이스의 낮게 흔들리는 저음에 몸을 기대려 합니다. 나는 지금 오른쪽 감박이를 켜고 차를 인도 쪽으로 붙여 서행하고 있습니다. 음반 가게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음, 음, 음악은 비껴 가려고 했습니다만, 쥐뿔도 모르면서, 음악의 그물코에 코가 꿰어 도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출렁이는 그물코에 조금씩 체중이 붙어나는 몸을 맡겨도, 참, 바그너도 몸을 도약시킵니다. 붕붕 떠오르는, 떠올라서 겨울 쪽으로 흘러가는, 오늘은 가을의, 비에 젖는 시월의 저물 무렵입니다. 콘트라베이스, 그 저음의, 몸집이 큰, 소리 없는 소리를 부둥켜 안고서...

내가 쓴 시 <콘트라베이스>의 전문이다. 오래 전 송 옥(1925~1980) 시인의 시집 《하여지향(何如之鄉)》(일조각)을 읽고 한편의 시를 쓴 적이 있지만, 이 작품 또한 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시를 쓴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이 작품을 쓴 뒤 나는 한참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방의 한 작가가 내 작품세계를 이렇게 깊이 침범할 수 있다니! 그리고 어느덧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와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주 말을 건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쥐스킨트 소설의 매력은 아마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것일 게다. 《좀머씨 이야기》의 좀머, 《향수》의 그르누이, 《깊이에의 강요》에 나오는 여류 화가 '그녀'는 죽는다. 《콘트라베이스》의 주인공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에 휩싸인 채 인생을 회회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주인공의 절규를 들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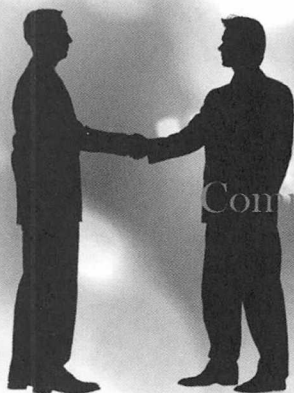
저는... 이렇듯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을 두고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 저에게는 사실 여가 시간이 많습니다 — 바로 지금처럼, 두려움 때문에 집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가위눌림 같은 것을 느끼며, 이런 안정된 생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밀폐 공포증이라든가, 고정된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비롯된 정신이상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쥐스킨트는 그의 주인공들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에 짙게 드리워진 보편적인 고뇌의 모습을 선명하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끝없이 걷다가 그만큼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좀머씨,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재적 향수 제조인 그르누이, 세인의 관심과 평판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투신 자살하는 여류 화가의 삶의 모습은 모더니즘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속성을 확대 재생산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쥐스킨트의 소설을 읽다보면 작가 자신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획일적 삶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향해 내던지는 그의 짙막한 스냅사진 같은 소설은 그만큼 강한 히스테리를 숨기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거꾸로 모더니즘에 앓은 체로 '피폭당한' 현대인의 보편적인 가슴앓이를 그가 멋지게 통찰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말하자면 쥐스킨트는 자신의 문학적 그물망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상황과 정서를 가두는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담백한 문체에 실어내는 매력이 나를 포함한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쥐스킨트의 문학적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dp design partner darum